

# 제주의 지킴이 방사탑(防邪塔)

양영길(시인)

방사탑은 마을 어느 한 방위에 어떤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 지형이 비교적 허(虛)하다면 그러한 허한 방위를 막아야 마을이 평안하게 된다는 속신에서 쌓아 올린 제주도의 탑이다. 여기서 탑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적 의미에서의 즉 불교에서의 탑이라기보다는 그 형태가 불교에서의 탑처럼 돌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붙여진 말이다.

방사탑을 쌓을 때는 좌우, 음양, 남북 대칭으로 쌓는 것이 보통이며, 탑 위에 새의 형상을 한 돌이나, 사람의 모양을 한 석상을 세운다. 또한 탑을 쌓아 올릴 때 속에는 밥주걱이나 솔을 묻고, 그 위로 돌담을 사람의 키 높이 이상으로 쌓았다. 밥주걱을 묻는 이유는 솔의 밥을 굽어 담듯이 외부의 재물을 마을 안으로 담아 들이라는 뜻이요, 솔을 묻는 것은 솔은 무서운 불에도 끄떡없이 이겨내기 때문에, 마을의 재난을 방액(防厄)해 달라는 뜻인 민간 신앙적 사고로 여겨진다.

방사탑은 속칭 거옥대, 거옥, 거왁, 극대라고도 하며, 어떤 마을에서는 탑과 다소 다른 의미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옥대 역시 탑과 같은 동기에서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한 예로 영평 하동의 경우는 풍수 지리적으로 남북이 허하다 하여 남대북탑(南台北塔), 즉 남쪽에는 거옥대를 세우고 북쪽에는 방사탑을 세웠다고 한다. 아마도 단지 그 형태의 구분에서 이런 차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영평 하동의 거옥대에는 소위 제주 돌하르방류에 속하는 석상을 돌로 쌓은 대 위에 만들어 세웠고, 방사탑은 다른 지역의 것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조천읍 신흥리는 탑 위에 돌하르방을 올려놓아 영등하르방이라 부르기도 하고, 거옥대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또 제주시 이호동이나 북제주군 한림읍 팍지리 등 다른 마을에서는 거옥대를 나무로 만들어 세웠다고 하는데 비바람에도 좀처럼 썩지 않는 비자나무나 참나무 같은 단단

한 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즉 기본적으로 돌로 쌓은 탑 상부에 각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상징물을 방사탑 위에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기능의 본연적 역할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방사탑과 거옥대는 육지부의 장승, 솟대가 가지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육지에서는 장승을 장승, 벽수, 장군석, 범수라 하며, 솟대를 솟대, 집대, 진대, 오릿대, 술대라 하는데, 모두 각각의 마을에 방액(防厄), 방사(防邪) 의미로 만들어졌다.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대표적 종교인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육지에서는 장승, 솟대가 만들어진 반면 제주에서는 방사탑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 한국이라는 보편성과 제주도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돌하르방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방사탑류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방사탑을 마을의 허한 방향에 세우면, 액운과 살을 막아준다는 풍수지리적인 방사의 기능과 함께 마을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마을의 안녕을 보장하고 수호하며 전염병의 예방, 화재예방, 해상의 안전과 아이를 낳게 하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대의 차이와 그 형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뿌리깊게 자리잡은 풍습인 것이다.

제주 일원에 있는 방사탑 중 문화재로 지정된 17기가 있다.





### 거 육대

거육대는 마을 어귀에 세워, 마을 안으로 잡귀의 접근이나 침입을 막아주는 일종의 수호신 역할을 하며, 흔히 ‘거육’, ‘극대’, ‘하르방’, ‘가마귀동산’, ‘영등하르방’ 등으로 불리운다. 육지에 있는 장승과 솟대의 기능에 비유될 수 있다 하겠다.

제주도에서는 지형상으로 보아 마을 어느 한 쪽이 공허하면 그 쪽을 통하여 재앙이 날아온다고 믿어, 그 쪽 공허한 공간에 거육대 또는 까마귀를 세워 재앙의 침입을 막았다. 즉, 직·간접적인 손실과 재앙을 주는 액을 막아 인명·가축·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속 신앙이다.

우체국 앞에 세워 놓은 거육대는 모슬포가 상·하모리로 나뉘는 당시 그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제작 연대를 조선 영조 25년(1749)으로 보고 있다.

이 석상은 키가 훌쩍한데, 다른 석물(石物)인 ‘돌하르방’이나 ‘동자석’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에는 골-모자의 가운데 부분-이 있고 테가 있는 모자를 쓰고 얼굴은 앞으로는 원형, 옆으로는 평면을 이루고 있다. 눈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반양각이고 눈썹과 입은 음각, 귀와 코는 양각으로 되어 있다.

석상의 목은 매우 짧아서 없는 듯이 표현되어 있고 살짝 들어간 듯한 상태에서 몸과 이어진다. 손은 배에 놓여 있는데,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손

이 내려간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있다. 옆과 뒷부분은 도포 비슷한 옷을 입은 것처럼 되어 있고, 가슴 한복판에는 사각 형태에 ‘간(干)’자가 음각되어 있다.

현재 이 석상은 우체국 앞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의 것은 형태를 온전히 지니고 있으나 서쪽의 것은 목이 달아나 없어 보기에 을씨년스럽다. 원래 이 거육대는 우체국 앞 도로를 경계로 남과 북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상모 1리 강필봉 용·상모 3리 박재남 전직 이장 고증)

